

## 상악 전치부에서 치조제 증대술을 이용한 심미적 회복

서효석\*, 홍기석, 임성빈, 정진형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최근 환자들의 심미적 요구가 커지면서 치주 성형술(periodontal plastic surgery)이 대두되고 있다. 치주 성형술에는 노출된 치근면의 피복, 치조제 증대술, 치간 유두 재생술 등이 있는데 이중 치조제 증대술에서 최근 골유도 재생술을 이용한 골재생을 동반하는 치치법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심미적 측면에서는 종래의 연조직의 성형수술이 여전히 유용하다.

치조제 결손의 원인은 다양한데 치주질환, 거친 발치, 외과 수술시 치조돌기에 대한 외상, 치주농양, 치아파절, 발육이상, 사고에 의한 외상, 종양, 부적절한 의치에 의한 외상, 임플란트의 실패 등이 있다. 특히 상악 전치부에서는 치조제가 흡수되면 상당한 정도의 심미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에는 치주 성형술 없이 치관장이 긴 가공치로의 보철적 대응이 이루어져 왔으나 근래에 이런 방법은 술자의 기준 뿐 아니라 높아진 환자들의 심미적 기준 역시 만족시킬 수 없다.

술식에는 발치 후 형성된 치조제 결손부에 연조직을 이식하는 방법으로써 Seibert의 전층 onlay 이식술, Garber & Rosenberg의 수여부에 pouch 상 판막을 형성하고 결합조직을 이식하는 방법, Langer & Calagna의 피하 결합조직이식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발전해왔다. 경조직 이식술로는 Nyman, Mellonig가 소개한 골유도 재생술을 이용한 방법이 최근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Greenstein은 발치와 동시에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 치조제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치조제 보존술(socket preservation)이라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연조직 이식시 주로 사용되는 상피하 결합조직 이식은 성공률이 높고 심미적이며 치은이식에 비하여 환자가 느끼는 수술 불편감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조직 공급에 한계가 있어 결손이 큰 경우 여러 차례 수술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수술 후 6주 동안은 이식편이 크게 수축하고 안정하는데 3개월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발면 골이식을 이용한 경우 수축이 일어나는 경우가 보다 드물고 수축은 수술 후 4-6주에 완성되어 3년까지 안정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본 증례 보고에서는 심미적인 비중이 큰 상악 전치부에서 연조직 이식 또는 골유도 재생술을 통해 이미 상실된 치조제의 수평적, 수직적 결손을 회복하거나 발치 후 심한 결손이 예상되어 발치시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한 몇몇 사례를 통해 심미적 외형이 회복, 유지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적절한 증례 설정에 관해 고찰 하려고 한다.